

중학교 혼성·동성학급의 체육수업 걱정거리에 대한 융복합교육 방안 탐색

이양구, 이승희
서원대학교

Convergence Educational Exploration of Anxiety about PE Class in Middle School Coed Class and Single-sex Class

Yang-Gu Lee, Seung-Hee Lee

Seowon University Dept. of Physical Education

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 수준을 혼성학급과 동성학급으로 구분하여 걱정거리의 하위 요인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융복합적 교육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중학교 6개교를 무선적으로 선정하여 55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급별, 학년별, 학업성적별, 체력등급별에 따른 걱정거리 하위 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 모형을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 수준은 학급별(혼성, 동성)에서 '처벌' 요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둘째,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 수준은 학년별에서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과 '수업 중 마찰' 요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중학교 체육성적 별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 수준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 수준은 체력등급별에서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 요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주제어 : 중학교, 혼성학급, 동성학급, 걱정거리, 처벌,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looks into the level of anxiety that middle school students have about PE class, dividing the classes into coed class and single-sex class and aims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differences in sub-factors of the anxiety. Subjects of the study were 554 students in randomly selected six middle schools located in Gyeonggi-do.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ub-factors of the anxiety according to class, grade, academic record and the level of physical strength, 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odel was set up and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was predicted that the level of anxiety about PE class in middle school would have a great impact on the factor, 'punishment' by class (coed and single-sex). Second, it was predicted that the level of anxiety about PE class in middle school would have a great impact on the factors, 'anxiety about the event of sports' and 'conflict during class' by grade. Thir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level of anxiety about PE class that middle school students had according to their academic record in PE. Fourth, it was predicted that the level of anxiety about PE class in middle school would have a great impact on the factor of 'anxiety about the event of sports' by the level of physical strength.

Key Words : middle school, coed class, single-sex class, anxiety, punishment, convergence

Received 10 September 2015, Revised 19 October 2015
Accepted 20 Nov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Seung-Hee Lee(Seowon University)
Email: lsh@seowon.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체육수업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가 낮을 것이라는 예측을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이 가능한 이유 역시도 체육수업에서 일어나는 수업 상황(학습과정)에 중점을 두면서 학생들의 인식과 정서를 고려한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심에 연구가 지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20]. 이러한 문제들로 나타나는 현상은 학생들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체육교과를 선택하지 않고 있으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체육교과가 필요 없는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업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과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 수업을 듣는 학생들까지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수업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의 행동과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7,17,20,24,25]. 학생들의 수업 상황을 이해하는 일은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실제 학생들이 수업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규명하는 일이 학생 이해의 가장 큰 목적이 될 것이다.

외국 사례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체육수업이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체육수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남녀가 함께 체육수업에 참가하게 되면서 체육을 선택하는 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특히 고학년 여학생들의 체육 선택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1,18]. 우리나라의 경우도 7차 교육과정의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교과목 선택권이 학생에게로 일부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21세기의 정보화·세계화의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는 것이며, 운영 방침은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인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신장을 위한 범교과적 활동 재량 시간을 학교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이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12]. 또한, 학교 폭력 예방 차원에서 남녀 공학이 권장되고 체육수업도 남녀 분반에서 혼성학급 체육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의 사례와 14세 이후 여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관

심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선행연구[21]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 체육수업이 선택으로 바뀌고 혼성학급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체육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학생들이 체육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심도 있게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육수업장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다양한 변인들을 밝히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체육수업이나 방과 후 스포츠클럽 참가에 있어 학생들의 걱정거리에 대한 연구는 다른 변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실시되었다[3,4,5,8,14,19,22,23,24]. 앞선 연구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김윤희와 강신복(2000)[24]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걱정거리로 ‘배우는 내용의 불만’, ‘자신감 부족’, ‘시험에 대한 부담’ 등 12개 요인을 제시하였으며, 이창섭과 남상우(2003)[5]는 고등학생들이 느끼는 걱정거리에 대한 척도를 개발한데 이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걱정거리 척도도 개발하였다. 중학생이 느끼는 걱정거리로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 ‘수업 준비 사항’, ‘수업 환경’, ‘운동 기술수행’, ‘처벌’, ‘수업 중 마찰’ 등 6개 요인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걱정거리 문항을 제작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미국과 호주에서 학생들의 체육 선택율이 감소하고 체육수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체육수업을 선택하는 이유와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 위한 단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1,2,9]. 이들 연구에서 학생들은 커리큘럼, 재미와 즐거움, 건강증진 때문에 체육을 선택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체육수업 보다는 다른 과목이 더 중요하고 수업에 지루함 때문에 체육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도 체육수업의 접근동기로 활용되는 재미요소와 회피동기로 작용하는 걱정거리 요소들에 대한 연구에서 성차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남학생들은 대부분 신체활동을 좋아해서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신체활동에 대한 흥미와 활동의 정도, 관심도가 낮아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남녀 혼성학급의 경우 남학생이

나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도는 저조하고 시험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는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1,15,24]. 이러한 체육수업에 대한 공포 현상의 차이는 상급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남학생은 더욱 왕성해진 남성다움을 더욱 과시하게 되고, 여학생은 자신의 여성성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증가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5]. 더욱이 중학교 남녀 혼성학급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경험 분석 연구에서는 교사의 성격 특성, 교수행동, 학습결과, 활동 등에 의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며, 교사의 성격 특성, 교수 방법, 수업환경과 활동 등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7].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도 주로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경험과 체육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체육 교과목의 선택권이 학생에게 점점 이양되고 남녀 혼성 수업이 권장되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학생의 관점에서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이다. 이에 따라 체육수업 시 학생들의 걱정거리는 혼성학급과 동성학급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과 체험을 규명하는 일련의 연구로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가 혼성학급과 동성학급 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파악하기 위해 걱정거리의 하위 요인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체육수업의 활성화와 융복합적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혼성학급과 동성학급 중학교 6개교를 무선적으로 선정하여 56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연구대상의 체육성적(상위, 중위, 하위)과 체력등급(우수, 보통, 미흡)을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자료 중 미 기입되었거나 불성실하다

판단되는 12명의 자료를 제외한 554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이용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 | factor | persons | frequency(%) |
|------------------|--------------------------|---------|--------------|
| grade | first year grader | 177 | 31.9 |
| | second year grader | 228 | 41.2 |
| | third year grader | 149 | 26.9 |
| class | single-sex class (man) | 181 | 32.7 |
| | single-sex class (woman) | 180 | 32.5 |
| | coed class (man & woman) | 193 | 34.8 |
| education record | high rank | 175 | 31.6 |
| | middle rank | 156 | 28.2 |
| | low rank | 223 | 40.3 |
| fitness level | good | 137 | 24.7 |
| | fair | 253 | 45.7 |
| | poor | 164 | 29.6 |
| | sum | 554 | 100.0 |

2.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혼성학급과 동성학급 중학생의 체육수업 걱정거리 규명을 위해 학교를 선정한 이후 자료수집 기간 동안 연구자들이 직접 일선 중학교를 방문하여 담당 체육교사를 면담한 후 해당 학생들에게 이창섭과 남상우(2003)[5]가 개발한 걱정거리 설문지(PCWSQM)를 배포한 다음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 내용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고 완성된 설문지는 현장에서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이들이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한 문항을 수정 없이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 체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으로는 운동 종목에 대한 걱정(6문항), 수업 준비 사항(5문항), 수업 환경(3문항), 운동 기술수행(3문항), 처벌(2문항), 수업 중 마찰(4문항)로 구성되었고, 체육수업에 대한 걱정거리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의 신뢰도 검사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설문의 신뢰도 분석결과 걱정거리 하위요인의 Cronbach 알파 계수 값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3 자료처리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지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추정하기 위

한 방법으로 Cronbach 알파를 사용하였다. 학급별, 학년별, 학업성적별, 체력등급별에 따른 걱정거리 하위 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모형을 설정하여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of survey results

| factor | question number | sum |
|-----------------------------------|-----------------|------|
| anxiety about the event of sports | 1,2,4,5,21,22 | .875 |
| preparation class | 9,10,11,12,19 | .748 |
| learning environment | 13,14,15 | .713 |
| perform movement skills | 18,20,23 | .617 |
| punishment | 7,8 | .823 |
| conflict during class | 3,6,16,17 | .676 |
| Cronbach'a = .929 | | |

3. 연구결과

3.1 학급별(혼성, 동성)에 따른 걱정거리 차이

중학교 학급별(혼성, 동성) 학생 집단의 사례 수와 걱정거리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걱정거리 하위 요인에 대한 학급별(혼성, 동성)에서 ‘혼성학급’ 학생의 집단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걱정거리 하위 요인 중 ‘처벌’에 대한 걱정거리는 동성학급인 남학교 학생의 집단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급별(혼성, 동성)에 따른 걱정거리 하위 요인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Wilks의 람다 값은 .87 ($p<.05$)로 학급별(혼성, 동성) 특성에 따라 걱정거리 하위 요인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별량 효과 검정으로 각각의 종속변수가 학급별(혼성, 동성) 학생의 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 걱정거리 하위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 수업 준비 사항, 운동 기술수행, 처벌, 수업 중 마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계적 분산분석 결과 역시도 학급별(혼성, 동성) 학생의 집단 특성에 따라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 운동 기술수행, 처벌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η^2 에 의하면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 요인은 총 변화량의 2%, 수업 준비 사항 요인은 1%, 운동 기술수행 요인은 3%, 처벌 요인은 4%, 수업 중 마찰 요인은 2% 정도가 학급별(혼성, 동성) 학생의 집단 특성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는 걱정거리의 하위 요인은 종속변수 중 학급별(혼성, 동성) 학생의 집단 특성에 따라 처벌 요인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3>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results for concern sub-factors of the class

| factor | N | anxiety about the event of sports | preparation class | learning environment | perform movement skills | punishment | conflict during class |
|-------------------------|-----|-----------------------------------|-------------------|----------------------|-------------------------|------------|-----------------------|
| | | M±SD | M±SD | M±SD | M±SD | M±SD | M±SD |
| single-sex class(man) | 181 | 2.43±0.91 | 2.26±0.82 | 2.67±0.95 | 2.38±0.88 | 2.80±1.24 | 2.34±0.83 |
| single-sex class(woman) | 180 | 2.52±0.94 | 2.28±0.79 | 2.75±1.01 | 2.30±0.96 | 2.22±1.03 | 2.29±0.80 |
| coed class(man&woman) | 193 | 2.70±0.93 | 2.46±0.81 | 2.83±0.95 | 2.65±0.91 | 2.53±0.99 | 2.57±0.79 |
| sum | 554 | 2.56±0.93 | 2.34±0.81 | 2.75±0.97 | 2.45±0.93 | 2.52±1.11 | 2.40±0.82 |
| univariate p | | .017 | .026 | .304 | .001 | .001 | .002 |
| stepdown p | | .017 | .362 | .610 | .003 | .001 | .148 |

<Table 4>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results for concern sub-factors of the grade level

| factor | N | anxiety about the event of sports | preparation class | learning environment | perform movement skills | punishment | conflict during class |
|--------------------|-----|-----------------------------------|-------------------|----------------------|-------------------------|------------|-----------------------|
| | | M±SD | M±SD | M±SD | M±SD | M±SD | M±SD |
| first year grader | 177 | 2.26±0.80 | 2.10±0.77 | 2.52±0.92 | 2.17±0.85 | 2.18±1.02 | 2.16±0.72 |
| second year grader | 228 | 2.69±0.98 | 2.41±0.84 | 2.86±1.02 | 2.57±0.96 | 2.64±1.16 | 2.42±0.84 |
| third year grader | 149 | 2.72±0.93 | 2.51±0.76 | 2.87±0.90 | 2.59±0.89 | 2.73±1.06 | 2.66±0.81 |
| sum | 554 | 2.56±0.93 | 2.34±0.81 | 2.75±0.97 | 2.45±0.93 | 2.52±1.11 | 2.40±0.82 |
| univariate p |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
| stepdown p | | .001 | .043 | .750 | .747 | .072 | .002 |

3.2 학년별에 따른 걱정거리 차이

중학교 학년별 학생 집단의 사례 수와 걱정거리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걱정거리 하위 요인에 대한 학년별에서 ‘3학년’ 학생의 집단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걱정거리 하위 요인 중 ‘수업 환경’에 대한 걱정거리가 고학년 단계인 3학년 학생의 집단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년별에 따른 걱정거리 하위 요인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Wilks의 람다 값은 .91 ($p<.05$)로 학년별 특성에 따라 걱정거리 하위 요인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별량 효과검정으로 각각의 종속변수가 학년별 학생의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 걱정거리 하위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하위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계적 분산분석 결과 역시도 학년별 학생의 집단 특성에 따라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 수업 준비 사항, 수업 중 마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η^2 에 의하면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 요인은 총 변화량의 5%, 수업 준비 사항 요인은 4%, 수업 환경 요인은 3%, 운동 기술수행 요인은 4%, 처

별 요인은 4%, 수업 중 마찰 요인은 5% 정도가 학년별 학생의 집단 특성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는 걱정거리의 하위 요인은 종속변수 중 학년별 학생의 집단 특성에 따라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과 수업 중 마찰 요인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 체육성적별에 따른 걱정거리 차이

중학교 체육성적별 학생 집단의 사례 수와 걱정거리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걱정거리 하위 요인에 대한 체육성적별에서 ‘하위권’ 학생의 집단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걱정거리 하위 요인 중 ‘수업 환경’에 대한 걱정거리는 하위권에 위치한 학생의 집단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체육성적별에 따른 걱정거리 하위 요인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Wilks의 람다 값은 .97 ($p>.05$)로 체육성적별 특성에 따라 걱정거리 하위 요인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별량 효과검정으로 각각의 종속변수가 체육성적별 학생의 집단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 걱정거리 하위 요인 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하

<Table 5>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results for concern sub-factors of the education record

| factor | N | anxiety about the event of sports | | | | | |
|--------------|-----|-----------------------------------|----------------------|-------------------------|------------|-----------------------|-----------|
| | | preparation class | learning environment | perform movement skills | punishment | conflict during class | |
| | | M±SD | M±SD | M±SD | M±SD | M±SD | M±SD |
| high rank | 175 | 2.53±0.99 | 2.29±0.87 | 2.73±1.00 | 2.49±0.95 | 2.61±1.23 | 2.39±0.88 |
| middle rank | 156 | 2.54±0.88 | 2.35±0.71 | 2.70±0.96 | 2.38±0.83 | 2.58±1.02 | 2.39±0.75 |
| low rank | 223 | 2.59±0.93 | 2.37±0.84 | 2.80±0.96 | 2.47±0.97 | 2.40±1.07 | 2.42±0.81 |
| sum | 554 | 2.56±0.93 | 2.34±0.81 | 2.75±0.97 | 2.45±0.93 | 2.52±1.11 | 2.40±0.82 |
| univariate p | | .742 | .605 | .628 | .554 | .138 | .896 |
| stepdown p | | .742 | .693 | .625 | .089 | .007 | .976 |

<Table 6> analysis results for concern sub-factors of the fitness level

| factor | N | anxiety about the event of sports | | | | | |
|--------------|-----|-----------------------------------|----------------------|-------------------------|------------|-----------------------|-----------|
| | | preparation class | learning environment | perform movement skills | punishment | conflict during class | |
| | | M±SD | M±SD | M±SD | M±SD | M±SD | M±SD |
| good | 137 | 2.12±0.83 | 2.28±0.89 | 2.55±0.95 | 2.16±0.90 | 2.60±1.21 | 2.27±0.85 |
| fair | 253 | 2.45±0.83 | 2.28±0.75 | 2.73±0.95 | 2.37±0.88 | 2.42±1.04 | 2.33±0.75 |
| poor | 164 | 3.10±0.92 | 2.48±0.83 | 2.95±0.99 | 2.82±0.91 | 2.60±1.14 | 2.63±0.84 |
| sum | 554 | 2.56±0.93 | 2.34±0.81 | 2.75±0.97 | 2.45±0.93 | 2.52±1.11 | 2.40±0.82 |
| univariate p | | .001 | .034 | .002 | .001 | .185 | .001 |
| stepdown p | | .001 | .001 | .475 | .954 | .007 | .237 |

위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계적 분산분석 결과 체육성적별 학생의 집단 특성에 따라 처벌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η^2 역시도 모든 하위 요인에서 1% 미만의 체육성적별 학생의 집단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걱정거리의 하위 요인은 종속변수 중 체육성적별 학생의 집단 특성에 따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4 체력등급별에 따른 걱정거리 차이

중학교 체력등급별 학생 집단의 사례 수와 걱정거리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걱정거리 하위 요인에 대한 체력등급별에서 ‘미흡’ 학생의 집단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걱정거리 하위 요인 중 ‘수업 환경’에 대한 걱정거리가 체력수준이 낮은 미흡 단계인 학생의 집단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체력등급별에 따른 걱정거리 하위 요인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Wilks의 람다 값은 .79($p < .05$)로 체력등급별 특성에 따라 걱정거리 하위 요인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변량 효과검정으로 각각의 종속변수가 체력등급별 학생의 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 걱정거리 하위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 수업 준비 사항, 수업 환경, 운동 기술수행, 수업 중 마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계적 분산분석 결과 역시도 체력등급별 학생의 집단 특성에 따라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 수업 준비 사항, 처벌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η^2 에 의하면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 요인은 총 변화량의 16%, 수업 준비 사항 요인은 1%, 수업 환경 요인은 2%, 운동 기술수행 요인은 7%, 수업 중 마찰 요인은 3% 정도가 체력등급별 학생의 집단 특성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는 걱정거리의 하위 요인은 종속변수 중 체력등급별 학생의 집단 특성에 따라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 요인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논의

청소년 시절의 체육수업에 대한 경험은 평생체육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체육수업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체육이 본래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체육수업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다양한 융복합적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혼성학급과 동성학급 학생들이 느끼는 체육수업에서의 걱정거리 요인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걱정거리 요인들의 개선으로 혼성학급 체육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우선 체육교사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학교 학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걱정거리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혼성학급 체육수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수업 환경과 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으로 학급당 인원이 줄어들고 학급수가 늘어나면서 교실 부족으로 탈의실을 갖춘 학교마저 탈의실을 수업할 수 있는 교실화로 변경하는 등 대부분의 학교가 탈의실이 없는 상황으로 교실과 화장실을 이용해 남학생과 여학생이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들은 체육복을 갈아입는 자체를 귀찮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3]. 이로 인해 여학생들은 체육복 속에 블라우스를 겹쳐서 입거나 심지어는 교복위에 그대로 체육복을 입을 정도로 체육복 갈아입기를 짜증스러워하고 있다. 남학생 역시도 화장실을 이용해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하는 불편 때문에 수업 시작에 늦거나 체육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수업의 질적 하락으로 직결됨으로써 체육수업에 대한 가장 큰 걱정거리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6,10]. 따라서 학생들이 체육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업 환경에 대한 걱정은 혼성·동성학급 학생 모두 다른 요인보다 더 높은 걱정수준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입시에 따른 성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과 신체적 피로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체육수업 걱정거리에 대한 홍준희와 임무경(2006)[16]의 선행연

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체육수업이 학생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교사나 상황에 맞게 수업이 실시되고 있어 나타난 인식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실현의 어려움이 많겠지만 학교 현장에 있는 체육교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체육수업에 대한 활성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체육수업에 대하여 느끼는 걱정거리의 학년별 차이는 모든 요인에서 나타났으며, 체육수업을 회피하고 싶은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수업 환경과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 차별에 대한 걱정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걱정수준을 보이는 요인 중 수업 환경에 대한 걱정거리 요인에서 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은 걱정거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3학년이 내신 성적의 부담으로 인해 체육수업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차별에 대한 걱정은 학생들이 체육교사가 폭력적이라는 인식과 신체적인 체벌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이는 체육교사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4,7]에서 논의된 바가 있고, 한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을 지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는 개별적인 행동보다는 질서정연한 단체 행동이 요구[24]되고 차별의 수단으로 체벌이 자주 이용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걱정거리 요인에 따른 체육성적과 체력등급 수준별 걱정거리 수준은 하위권에 속한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위권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배우는 종목에 따라 체육성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판단되며, 학생들이 실패의 두려움, 창피함이나 수치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다른 성적 수준의 학생들 보다 높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걱정거리로서 가장 높게 인식한 수업 환경에 대한 요인은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체육교사는 몸이 좋지 않음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모두 쉬게 해 줌으로서 야기되는 수업분위기의 흐트러짐을 우려하여 억지로 학생들을 수업에 참가시키려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학생들은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거나 걱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5]. 그리고 현실적으로 체육관이나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체육수업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운동경험을

제공할 수가 없으며, 교재 및 교구 부족으로 인한 수업에서의 대기 시간은 실제 운동학습 시간을 감소시켜 학생들의 참여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또한 좁은 운동장에서 여러 개의 학급이 동시에 수업을 함으로 인해 학생들이 부딪히고 학급 간 수업에도 방해가 되어 수업의 질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생각된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교육에서는 개별적인 행동보다는 질서정연한 단체 행동이 요구되고 처벌의 수단으로 체벌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앞서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외국사례의 경우 우리나라 교육 현장과 많은 차이를 보이기에 이 부분의 논의 과정과 결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금에 결과들은 다음에 제시된 국내의 선행연구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차별에 관련된 요인은 선행연구[5,7,22]에서도 주요한 걱정거리 및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생들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까지 기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체육수업을 하는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같은 반 아이들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고무시키려는 의도로 체육교사가 행할 수 있는 단체기합이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체육수업에 대한 거부감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수업준비 사항 역시도 준비운동이나 운동장 뛰기, 그리고 교복 위에 체육복을 껴입고 나왔을 경우의 태도점수의 감점에 대한 환경여건이 그들에게 걱정거리나 스트레스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교육당국과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환경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과 체험을 규명하는 일련의 연구로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를 혼성학급과 동성학급으로 구분하여 걱정거리의 하위 요인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융복합적 교육 정보를 학교 현장에 제공함으로써 체육수업의 활성화와 올바른 체육 교육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에 연구 목적과 방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와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중학교 학급별(혼성, 동성)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 수준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걱정거리 하위 요인 가운데서도 처벌 요인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둘째, 중학교 학년별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 수준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걱정거리 하위 요인 가운데서도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과 수업 중 마찰 요인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중학교 체육성적별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 수준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학교 체력등급별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 수준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걱정거리 하위 요인 가운데서도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 요인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위에서 진술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향후 전개될 연구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에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전국의 중학교 혼성·동성학급 학생들의 인식이라고 보기에는 조심성이 요구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표본을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보다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도 남녀 혼성학급 체육수업이 점점 증가되고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학생의 선택권이 점점 중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고 있는 체육수업 환경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풍부한 체육 도구 및 시설의 확충, 교사의 재교육, 체육 행정가들의 인식 전환 및 적극적인 지원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Browne, J., Reasons for the selection or non selection of physical education studies by year 12

girls.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Vol. 11, pp. 402-410, 1992.

[2] Butcher, J., A study of the differences between high school girls who elect physical education and high school girls who do no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lhousie University, Halifax, NS, 1976.

[3] Byoung-Jun Kim, Sources of enjoyment and stress in sports among korean yon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Vol. 10(2), pp. 193-209, 1999.

[4] Chang-Hoon Seong & Sung-Su Baek, Promotive and interruptive sources of enjoyment in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clas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Sport Pedagogy*, Vol. 7(2), pp. 99-116, 2000.

[5] Chang-Seop Lee & Sang-Woo Nam, A development of questionnaire on sources of enjoyment and worry in physical education class of middle school. *Journal of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Vol. 42(3), pp. 161-173, 2003.

[6] Dae-Jin Kim & Do-Soon Moon, Comparison of participation patterns in two different physical education setting.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Sport Pedagogy*, Vol. 10(2), pp. 23-37, 2003.

[7] Eun-Chang Kwak & On-Seo Park, A critical incident study of middle school students' beliefs about physical education classe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Sport Pedagogy*, Vol. 5(2), pp. 57-70, 1998.

[8] Gould, D., Jackson, S. A., & Finch, L. M., Sources of stress I national champion figure skaters.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Vol. 15, pp. 134-159, 1993.

[9] Hall, M. A., & Richardson, D. A., Fair ball: Towards sex equality in canadian sport. Ottawa, ON: The Canadian Advisory Council on the Status of Women, 1982.

[10] Ho-Sung Seo, Won-Jun Choi & Jin-Hee Kim, A Research on the coeducational perception fo girls' in middle physical education clas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Sport Pedagogy*, Vol. 11(2), pp. 245-259, 2004.

- [11] Jang-Hwan Kim, Jin-Kee Park & Jae-Yeun Jung, Relation between participant desire in activities of physical education activities and cognition of high school students on class of physical education by sex and department.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12, pp. 215-226, 1999.
- [12] Jeong-Ae You,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Daehanmedia Seoul Korea, 2012.
- [13] Jong-ho Kim & Sung-ho Rim, The analysis of middle school students' experiences of coeducational physical education classe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Sport Pedagogy*, Vol. 10(1), pp. 39-55, 2003.
- [14] Jong-Kil Lee, An analysis of profiles and determinant factors of fun in youth sports. *Journal of Korean Sociology of Sport*, Vol. 14(1), pp. 37-54, 2001.
- [15] Jung-Woo Lee, Analysis on stress factors and plans of reducing stress level of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physical. *Journal of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Vol. 42(2), pp. 173-184, 2003.
- [16] Jun-Hee Hong & Moo-Kyung Im, The analysis of level of score and sex according to the middle school students' worry factor in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Vol. 17(1), pp. 79-90, 2006.
- [17] Kyung-Won Kim & Kee-Chan Joo, Sport education model from the viewpoints of educational psychology.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Sport Pedagogy*, Vol. 6(2), pp. 57-70, 1999.
- [18] Luke, M. D., & Sinclair, G. D., Sources of stress in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Vol. 11, pp. 31-46, 1991.
- [19] Scanlan, T. K., Stein, G. L., & Ravizza, K., An in-depth study of former elite figure skaters: Source of stress.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Vol. 13, pp. 103-120, 1989.
- [20] Silverman, S., & Subramaniam, P. R., Student attitude toward physical education and physical activity: A review of measurement issues and outcome.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Vol. 19, pp. 97-125, 1999.
- [21] Wersch, A. V., Trew, K., & Turner, I., Post-primary school pupils' interest in physical education: Age and gender difference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62, pp. 56-72, 1992.
- [22] Won-Teack Hong & Eun-Chang Kwak, A critical incident study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about physical education clas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Sport Pedagogy*, Vol. 7(2), pp. 61-74, 2000.
- [23] Yong-Sok Lee, The research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concerning the physical education class: In the center of high school student in the areas of guri and nam-yang-ju counties. M.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2001.
- [24] Yoon-Hee Kim & Sin-Bok Kang, Exploring stress sources in physical education setting: A students'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Vol. 39(2), pp. 583-594, 2000.
- [25] Yoon-Hee Kim, Perceptions of enjoyment in physical education: A students'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Sport Pedagogy*, Vol. 6(2), pp. 93-110, 1999.

이 양 구(Lee, Yang Gu)



- 2009년 2월 :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체육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서원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체육측정평가
- E-Mail : yglee@seowon.ac.kr

이 승 희(Lee, Seung Hee)



- 2008년 2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서원대학교 체육 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사회학
- E-Mail : lsh@seowon.ac.kr